

“게임 데이터 공짜”... 제로레이팅, 독일까 독일까

통신사-콘텐츠사 제로레이팅 활발 초반엔 소비자 이용 부담 적지만 유료 서비스·광고 행위 등 우려 대형사업자에 ‘쏟림현상’ 초래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게임 업계와 손 잡고 특정 게임을 이용하면 데이터 이용료를 따로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소비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내주는 ‘제로레이팅’을 통해서다.

단기적으로 보면, 고객들의 통신비를 줄여줘 좋은 평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쏟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소비자의 콘텐츠 사용에 소요되는 요금이나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비용의 부담 주체와 정산 기준 등을 미리 약정해 제공된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이 증강현실(AR) 돌풍을 일으킨 나이언틱의 ‘포켓몬고’에 제로레이팅



청소년들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을 도입한 이후 주로 게임을 대상으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SK텔레콤은 데이터가 부족한 10대 중고생을 위해 4일부터 게임, 카메라, 커뮤니티 등 15개 애플리케이션(앱)을 데이터 소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앱은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즈, 나이트크로니클(넷마블) ▲마음의소리, 노블레스, 2018프로야구, 브라운더스트(네오위즈) ▲스노우카메라(스노우) ▲형그

리엠, 모비, 모비톡(모나와) ▲김급식, 장급식, 최급식(스콜피드) ▲뮤직메이트(SK 테크엑스) 등이다.

KT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 출시를 맞아 넥슨, 펍지주식회사, 펠어비스 등과 제휴를 맺었다. 이를 통해 KT가 유통하는 갤럭시노트9에 이들 게임사의 인기 게임을 탑재해 게임 구동 후 플레이에 소모되는 데이터가 과금 되지 않도록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0(영)브랜드’ 서비스 간담회에서 “데이터 비용 지불의 경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고객과 콘텐츠 사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략은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소비자의 니즈를 겨냥한다. 통신사는 특정 콘텐츠 이용을 원하는 고객을 붙잡는 ‘목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운 학생 등의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콘텐츠를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문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력을 가진 소수 기업이 제로레이팅 요금을 활용할 경우 시장이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이 고착화되면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일정 시점에 서비스 가격을 부과하거나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를 조절해 이윤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월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콘텐츠 사업자와 이동사,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5G 시대 바뀌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등 통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올해 초부터 인터넷생협의체에서 제로레이팅을 포함한 망중립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소비자의 장기적인 이익에 반하는지와 우회적인 유료 서비스 강요나 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방탄소년단이 모닝콜... ‘LG Q7 BTS 에디션’

13일부터 19일까지 예약 가입 국내서 첫 출시... 47만3000원

LG전자가 방탄소년단 관련 콘텐츠를 다양하게 담은 ‘LG Q7 BTS 에디션(사진)’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예약 가입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이동통신 3사 온라인 숏에서 가능하다.

LG Q7 BTS 에디션은 LG Q7에 방탄소년단 관련 특화 기능들을 담은 한정판 제품이다. 사용자의 개성을 돋보이게 해

주면서 방탄소년단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다.

LG전자는 제품 후면과 번들 이어폰, 충전기 등에 방탄소년단 로고를 적용했다.

또 ▲멤버들이 직접 쓴 글씨로 만든 이모티콘 ▲처음으로 공개되는 25개의 멤버 사진이 매일 랜덤으로 바뀌는 월페이퍼 ▲남은 배터리 용량을 알려주는 ‘배터리 충전 위젯’ ▲멤버들이 직접 녹음한 굿모닝·굿나잇 콜 ▲육성 벨소리 ▲BTS 전용 앱 폴더 ▲BTS 갤러리 등 방탄소년단

이 직접 참여해 만들었다.

신제품은 20일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되며 출고는 47만3000원이다.

LG전자는 국내 출시 이후 독일, 스페인, 브라질, 호주 등 10여 개 국가에 출시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이스타항공, 일본 현지 마케팅 강화

日 복지대행기업 리로클럽과 MOU 인바운드 고객 확보 기반 마련 기대

이스타항공이 일본 최대 기업복지물 운영기업인 리로클럽(Relo Club)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선다.

10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최근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리로 클럽 본사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과 리로클럽 카와노 타케시 대표를 비롯한 현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사의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조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리로클럽은 일본 복지대행 서비스 기업으로 일본 전역의 1만 여개 기업, 630만 명의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여행, 관광, 쇼핑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리로클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일본 현지 인바운드 고객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인 일본 노선 마케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리로



4일 일본 도쿄 리로클럽 본사에서 Relo Club 카와노 타케시 대표(왼쪽), 이스타항공 미래전략실 김유상 전무(오른쪽)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스타항공

클럽의 회원에게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스타항공 이용객은 리로클럽의 다양한 할인·제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새로운 노선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의 고객 만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번 일본 최대 규모의 복지대행사와의 업무협약이 일본 현지 노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한국타이어 R&D·생산·마케팅 등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한국타이어는 오는 27일까지 2018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반기 채용 분야는 연구개발과 생산 기술, 경영지원, 마케팅 직군을 중심으로 신입 및 경력, 산학장학생을 모집한다.

채용기간 동안 지원자와의 소통을 위해 ‘프로액티브 랩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프로액티브 랩투어는 테크노돔을 견학하며 최첨단 기술과 기업문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채용박람회는 14일까지 전국 9개 대학의 10개 캠퍼스에서 운영되며 타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전공에 맞는 직무별 맞춤 취업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입사 희망자는 27일까지 한국타이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중순 한국타이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LG이노텍 ‘GM 품질우수상’ 2년 연속 쾌거

전기차용 부품 경쟁력 인정 받아

LG이노텍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GM)로부터 ‘품질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차량 전자부품의 뛰어난 품질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2016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품질우수상은 GM이 매년 품질 결함 ‘제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킨 협력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LG이노텍은 GM에 DC-DC(직류-직류)컨버터와 EVCC(전기차 충전용 통신 컨트롤러) 등 전기차용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높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DC-DC컨버터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고압의 직류 전력을 차량 전자장치에 적합한 저압 직류로 바꾸는 부품이다. EVCC는 전기차와 충전 기기 간에 충전 상태, 사용자, 요금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중요 기능을 한다.

이번 품질우수상은 LG이노텍이 GM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상이다. LG이노텍은 배터리제어시스템을 공급하며 2년 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DC-DC컨버터와 EVCC까지 ‘완벽 품질’로 공급해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LG이노텍은 지난 15년여 간차

량부품사업에 전문화된 품질 경영을 펼쳤다. 차량부품사업에 본격화한 2004년에 이미 자동차 분야 표준 품질경영시스템인 IATF16949 인증을 획득했다. 2014년에는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표준인 ASPICE 인증을 받았다.

또한 LG이노텍은 차량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인 ISO26262와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인 AUTOSAR에 기반한 차량부품을 양산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차량부품사업에서만 지난해 85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1년 3000억원에서 세 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차량부품의 제품 라인업도 크게 늘었다. 조향·제동용 정밀모터와 센서, 통신 모듈에서 주행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차량용 카메라모듈, LED, 무선충전모듈 등이 더해졌다. 여기에 BMS, DC-DC 컨버터, EVCC, V-2X모듈 등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부품까지 총 20여 종에 이른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차량부품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제품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완벽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R&D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모든 부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승객 60%가 여성’... 기내 女전용 화장실 운영

에어서울 모든 항공기에 설치

에어서울이 10일부터 여성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내에 여성 전용 화장실을 배치해 운영한다.

에어서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A321-200)에 여성 전용 화장실을 하나씩 설치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에어서울 탑승객 중 여성 승객들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최근에는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여성 승객



에어서울 기내 여성 전용 화장실.

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용 화장실을 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성문 기자 ysw@